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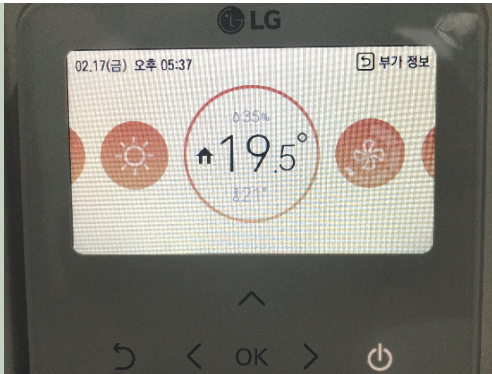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3월 23일(일) 제1533호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창조질서회복을 위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세상을 섬기신 어린양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각 캠퍼스 본당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이하 40일 새벽 기도회)가 벌써 3주차를 맞이한다. 주제는 ‘세상을 섬기신 어린양’이다. 3월 24일(월) ‘최사함 예수님께 나아갈 이유’ (막 2:1~12), 25일(화) ‘“당다” 그 용기와 완전한 치유’ (막 5:25~34), 26일(수) ‘생명을 살리는 가장 완벽한 시간과 방법’ (요 11:39~44), 27일(목) ‘불쌍히 여기시는 분, 믿음을 더하시는 분’ (막 9:20~29), 28일(금) ‘좋은 밭의 이유’ (마 13:18~23)를 주제로 설교가 이어진다.

올해 40일 새벽기도회는 4월 18일(금)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 TV 채널에서 새벽기도회 실황을 중계한다.

이영자 권사(가정사역공동체)는 “내 의지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고, 박종훈 안수집사(서초A공동체)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나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다.

40일 새벽기도회 참여 이벤트도 한다.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여해서 찍은 사진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진을 인스타그램 해시태그(#40일어린양을바라보라) 하고, 사진과 태그가 담긴 게시글을 캡처해서 온누리교회 인스타그램 계정에 DM(Direct Message)을 보내면 된다. 성도들이 보낸 사진은 온누리교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더 은혜롭고, 유익한 40일 새벽기도회 참여를 원한다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웹페이지’ (onnuri40.onnuri-church.com)를 활용하면 된다. 웹페이지에서는 ‘출석’, ‘말씀’, ‘묵상’ 기능을 제공한다(관련 기사 5면). 웹페이지 관련 문의는 채널톡(onnuri40.channelio)으로 하면 된다.

/ 홍하영, 박지혜 기자

우리의 사명, 창조세계 돌봄!

4월 18일까지 ‘사순절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하나님 창조 선물 지키고, 돌보는 실천 이어가기

2025 사순절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창조세계돌봄’ (이하 창조질서회복 캠페인)이 한창이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창조 선물인 빛, 공기, 물, 땅, 계절, 생명, 인간을 묵상하고, 이를 돌보고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창조질서회복 캠페인은 4월 18일(금)까지 이어진다.

창조질서회복 캠페인은 사순절 기간에 이어진다. 이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무분별한 이기심과 탐욕을 회개하고, 작은 실천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올해 창조질서회복 캠페인에서는 매주 월요일 ‘인간’을 주제로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감사와 사랑, 격려를 표현하고,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에는 ‘빛’, ‘공기’, ‘물’, ‘땅’, ‘계절’, ‘생명’을 주제로 환경을 보호하고 돌보는 실천을 한다.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창조세계돌봄’ 3주차(3/24~28일) 주제는 ‘물’이다. 월요일에는 가정과 일터, 학교 등에서 만나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먼저 다가가 말하는 실천을 한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물’에 관한 실천을 한다. 25일(화) ‘비누 혹은 샴푸를 사용할 때 물 잠그고, 양치 컵 사용하기’, 26일(수) ‘설거지할 때 천연 발효액(EM) 세제 사용하고 설거지통 사용하기’, 27일(목) ‘일회용 컵 대신 개인용 컵이나 텀블러 사용하기’, 28일(금) ‘세탁물 가득 채워 돌리기’를 실천한다.

사회선교본부 생명과환경팀에서는 성도들이 창조질서회복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 사항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책(e-Book)을 제공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창조질서회복 캠페인에 참여하고 후기를 사

진과 소감문으로 작성해서 4월 20일(일)까지 사회선교본부 생명과환경팀 이메일(onnuri.ent@gmail.com)이나 문자메시지(010-6442-0191)로 보내면 추천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준다. 온누리교회 공식 SNS와 <온누리신문>에도 소개할 예정이다.

차세대도 사순절에 ‘사순절 성경쓰기’와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Bye Bye 플라스틱’을 한다. 4월 19일(부활절)까지 매일 정해진 성경본문을 따라 쓰고,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한다. 예수님의꿈아이 ‘컬러링북’, 꿈이자라는 땅(초등부, 소년부)과 파워웨이브 ‘성경쓰기’,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컬러링북과 성경쓰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순절 성경쓰기를 하면 된다. Bye Bye 플라스틱 캠페인에서는 하루 동안 사용한 플라스틱(비닐)과 일회용품 생각해 보기, 다회용품 사용하기, 사용한 플라스틱 분리수거 등을 실천한다.

문의: 02-3215-3434(사회선교본부)

02-3215-3523(차세대)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CGN 개국 20주년 감사예배

3월 28일 오전 10시 서빙고 본당

선교미디어 CGN이 개국 20주년을 맞이한다. 이를 축하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오는 3월 28일(금)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CGN 임직원과 온누리교회 리더십, 교계 대표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선교미디어 CGN은故 하용조 목사의 선교비전으로 개국했다. ‘선교의 내일을 더하다, CGN’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 세계에 양질

의 기독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올해도 CGN은 다양한 특집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6월 선교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이 전국 개봉을 앞두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복음의 가교’가 된 일본인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CGN 미주 지사에서 제작한 선교 다큐멘터리 ‘미션 로그’, 세상의

가장 낮고 험한 곳으로 향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땅 끝의 증인들’ 시즌2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CGN 전진국 대표는 “CGN이 지난 20년 동안 선교 콘텐츠로 열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준 하나님과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CGN이 앞으로도 선교의 비전을 따라 순수한 복음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급하도록 꾸준한 관심과 사랑, 후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홍하영 기자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상반기 개강

온누리교회 온라인 돌봄공동체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상반기 개강을 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20세 이상 온누리교회 성도 중에서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이 어려운 이들을 온라인으로 돌보는 공동체다.

온라인커뮤니티 상반기는 4월 8일(화)부터 6월 10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기에는 여성민 목사가 강의한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카카오톡채널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요한계시록〉5장에 나타난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동등하게 어린양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양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이루신 구속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5장 요한이 바라본 장면에서 어린양이 처음부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먼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 있습니다. 그 책은 두루마리 형태였을 것입니다. 앞뒤로 기록될 만큼 많은 내용이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특히 봉인된 두루마리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봉인돼 있어서 아무나 펼 수 없다는 예언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강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에서, 땅 아래도 그 책을 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한이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자 큰 소리로 슬피하며 읊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좌절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고 기도했던 게 무위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기에 비탄함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러한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인봉을 뿔 수 없음을 보았을 때 느끼는 슬픔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그러나 장로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일곱 인을 열 것이다.”

그 책을 열기에 합당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유다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분입니다. 승리하신 분으로, 그 일곱 인봉을 떼고 책을 열 수 있는 분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는 호칭은 구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유다지파의 사자’라는 호칭은 아홉이 자신의 열두 아들에게 죽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나온 유언적 예언입니다. 그중에 유다 지파를 축복하며 “유다의 자손 중에서 사자의 힘과 맹렬함을 지닌 한 사람이 나올 텐데 그가 원수들을 이기고 모든 백성을 통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용어는 〈이사야〉에서 특히 많이 나옵니다. 메시아를 예언할 때 다윗의 뿌리 혹은 이새의 뿌리, 다윗의 싹, 이새의 싹, 줄기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사 11:10). 민족들의 깃발, 나라들에게 찾아올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조상입니다. 다윗의 뿌리입니다. 두 말씀을 합하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다윗의 뿌리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사자 같으신 분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할 사자입니다. 요한이 사자에 대해 들었습니다. 사자와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 다윗의 뿌리에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눈으로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양이었습니다.

사자처럼 강하신 분이
어린양처럼 연약한 존재가 되어

사자이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린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6절). 이 어린양은 특별합니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습니다. 일곱 뿔은 완전한 권능을, 일곱 눈은 완전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권능과 지혜를 가진 어린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목적을 가진 자발적인 죽음입니다. 사자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 어린양으로 목적 있는 죽음을 이루셨습니다(요 10:18).

사자처럼 강하신 분이 어린양처럼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자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대적자들을 정복하기 위해 어린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어린양이 유일하게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유는 그분이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는 사자의 힘이 아니라 어린양의 힘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은 희생의 승리입니다. 어린양을 따르는 성도들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승리해야 합니다. 어린양처

럼, 자신을 희생하고 섬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어린양이 보좌에 앉으시고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실 때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기 가득 담긴 금대접을 들고 엎드려 새 노래를 부릅니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양 앞에 두 가지를 드립니다. 하나는 금대접에 담긴 향인데,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드려진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금대접에 담겨 향이 되어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함께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새 노래가 드려집니다(9~10절).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어린양의 죽음으로 흘리신 피로 모든 족속과 나라 사람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양의 피로 구속하신다는 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여준 게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임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때 쓰신 방법이 피를 통한 구별입니다(출 12:13). 왜 하나님이 피를 보고 그냥 지나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유월절의 ‘유월’은 ‘넘어간다(passover)’는 뜻입니다.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죽어선 제물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이미 그 집에서 실행되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봐준다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그 집에 임했다고 간주하심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부 집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그분에게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간주하심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양을 통한 구속입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아들, 어린양의 피

〈레위기〉17장 11절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선언합니다. 첫째, ‘피는 생명’이다. 둘째, ‘피가 속죄’를 이룬다. 셋째, ‘속죄를 위해 하나님이 그 약속의 피를 주신다’입니다. 피가 생명의 상징이고, 피가 속죄를 이루고, 생명을 위해 다른 생명이 죽어서 속죄되는데,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어린양의 피입니다. 유월절의 피가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의 피입니다.

〈출애굽기〉12장에서 유월절에 잡는 양을 표시할 때 쓴 관사가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할 때 단수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중에는 오직 한 마리의 양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갈보리에서 죽으신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 그 양을 표시할 때 관사를 계속 바꿉니다. 〈출애굽기〉12장 3절에서는 ‘어린양 한 마리(a Lamb)’라고 합니다. 4절에서는 ‘그 양(The Lamb)’이라고 합니다. 5절에서는 ‘너희의 어린양(Your Lamb)’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게 하실 때 그 한 마리의 양은 ‘바로 그 어린양’,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과 심판의 약속이 담겨 있는 어린양입니다. 그분의 피로 내가 구속받았음을 알았을 때 그분은 나의 양이십니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양을 경배하는 두 번째 이유는 어린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그 땅에서 왕노릇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출 19:5-6).

어린양이 구속하신 이유는 구속받은 이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속받은 이들을 또 다른 이들이 구속받는 제사장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때 요한이 보좌들과 생물들과 장로를 에워싼 수많은 천사가 큰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임당한 어린양이 부활하심으로 인간과 만물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양을 따르는 ‘승리의 길’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요한계시록〉4장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5장에 나타난 어린양께 함께 경배를 드립니다(13~14절). 어린양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경배를 받으십니다. 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 그분의 돌보심과 주권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양을 따르는 성도들은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양이신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책을 여시고, 그 심판대로 집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사자이신 분이 죽임당한 어린양이 되신 것처럼, 자기희생의 모습으로 그분이 가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양을 따르는 ‘승리의 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이 땅에서 천국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과학과 신앙

‘참 빛’의 의미, 기독교 세계관에서 바라보다

‘과학적 관점에서 빛은 측정 가능하고, 시각을 가능하게 하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다. 태양 빛은 식물의 광합성을 돕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물리학에서 빛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일부로 가시광선 뿐만 아니라 자외선, 적외선, X선 등 다양한 파장을 포함한다. 파장대의 차이는 진동수와 파장으로 결정되는데, 이를 활용해 의료 진단(X-ray, MRI), 통신(광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하고 있다.

인간은 감각 기관, 특히 눈을 통해 빛을 인식한다. 외부에서 들어온 빛은 눈의 각막과 수정체를 거쳐 망막에 도달한다. 망막에 있는 광수용체가 이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색과 형태를 구별하고, 공간을 인식하며, 물질세계를 탐구할 수 있다. 만약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물리적으로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혀 시각적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과학적 빛은 지식을 확장하고, 세상을 탐색하는 도구이지만,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삶의 방향성을 스스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 빛’은 물리적 빛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단순한 시각적 개념을 넘어서 인간의 영혼을 깨우고 생명을 주는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

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참 빛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닌 인간 존재의 본질을 결정하는 요소임을 밝히셨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한다. 참 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만이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 빛은 감각 기관이 아니라 영적 인식을 통해 경험되며, 이는 단순한 시각적 경험을 넘어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킨다.

물리학에서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의 이중성을 갖는다. 빛은 특정 상황에서는 간섭, 회절, 편광 등 파동으로 거동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광전 효과, 콤프턴 산란 등 입자로 거동한다. 이러한 빛의 이중성은 20세기 초반 양자역학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현재는 $\lambda = \frac{h}{p} = \frac{h}{mv}$ (λ : 물질파의 파장, h : 플랑크 상수(6.626×10^{-34} J·s), p : 입자의 운동량($p=mv$))이다.

즉, 입자의 운동량이 많을수록 물질파의 파장은 짧아지며, 반대로 운동량이 적으면 파장은 길어진다. 이는 전자와 같은 미시적인 입자들이 파동처럼 중첩하기도 하고, 간섭과 회절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드브로이(De Broglie)의 물질파 개념으로 일반화되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빛은 두 가지 차원을 가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요 8:12), 이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영적 빛을 의미한다. 동시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빛이 있으라”는 말씀(창 1:3)은 물리적 빛의 창조를 나타낸다. 이처럼 성경적 빛은 영적 차원과 물리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며, 창조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조화를 이룬다.

현대의 진화론적 세계관에서는 감각적 경험과 이성적 탐구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실재와 참 빛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참 빛이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비추고, 인간이 바른길을 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단순한 개인적 변화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와 사회에도 선한 영향을 미친다.

기독교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참 빛이 삶의 모든 영역을 비추어 함을 강조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신앙인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명확히 하셨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며, 사회적 유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이들은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변함없는 절대적 도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도덕적 혼란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한다. 혼란과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참 빛을 전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존재이다. 이러한 삶은 기독교 세계관이 단순한 개인의 신념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과학은 빛의 물리적 속성을 탐구하며 자연계의 법칙을 밝혀내지만, 인간이 경험하는 참 빛의 개념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는 인간의 내면을 비추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빛이다. 세상은 물리적 빛이 필요하지만,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한 생명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참 빛은 우리의 영혼을 열어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보게 한다.



한필규 장로
(서빙고 파워웨이브3부, 이촌공동체)

특별기고

다윈주의자를 괴롭히는 파리의 최적 설계

다윈주의 유물론자들은 생물이 잘못 설계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랑니’, ‘꼬리뼈’, ‘맹장 같은 소위’ 등 ‘흔적’ 부분과 팬더의 ‘엄지손가락’과 같은 잘못된 적응으로 추정되는 ‘정크 DNA’는 모두 설계자가 용납하지 않을 기능으로 선전됐다. 이러한 것들은 생명에는 목적이나 설계가 없다는 증거라고 한다. 진화의 수많은 실수의 흔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맘에 드는 우연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이러한 특징들에도 목적(심지어 중요한 목적)이 있으며, 문제는 생물의 설계가 아니라 그 목적에 대한 과학자들의 무지라는 것이 거듭 밝혀지고 있다.

‘정크 DNA’가 가장 극적인 예일 수 있다. 한때 주류 과학계에서는 우리 DNA의 90% 이상이 진화 과정에서 더는 필요하지 않은 쓸모없는 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0년대와 2010년대 들어 일련의 극적인 발견을 통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다. 과학자들은 이제 ‘정크 DNA’가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처럼 유기체에서 중요한 조절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생명

체는 잘 설계된, 어쩌면 최적으로 설계된 존재라는 사실이 점점 더 많이 밝혀지고 있다. 이것은 생물이 설계자의 작품이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하지만 ‘최적의 설계’란 무엇이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에밀리 리브스는 <에볼루션 뉴스>에 생명체의 최적 설계를 수학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프린스턴 물리학자의 새 논문을 요약했다. 윌리엄 비알렉은 유기체의 발달에서 ‘정보 흐름의 최적화’라고 부르는 것을 살펴보고 초파리(일반적인 과학 실험 대상)를 예로 들었다. 번식이 빠른 이 곤충은 단 몇 시간 만에 하나의 세포에서 완전한 개체로 성장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형광 현미경’이라는 것을 통해 이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연구진은 암컷 파리가 알을 낳는 순간 알 주변에서 배아에게 위, 아래, 중간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일련의 신호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배아 전체에 걸쳐 서로 다른 양의 단백질을 생산하는 ‘갭 유전자 네트워크’를 촉발해 분절된 몸을 만드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놀랍도록 우아하고 단순한 과정이다. 비

알렉은 이 관찰 결과를 수학 방정식으로 변환해 어미 파리에서 갭 유전자 네트워크를 통해 자손의 신체 구조로 전달되는 정보의 흐름이 이론적 최적값의 1~2% 이내라는 것을 발견했다. 즉, 곤충 간 정보 전달 과정이 물질적으로는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자연의 ‘나쁜 설계’로 추정되는 모든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는 다윈주의자들이 예상했던 게 아니기 때문이다. 리브스의 말처럼, 고도로 최적화된 시스템은 역사적으로 다윈주의 진화의 예측이 아니라 오히려 지적 설계 이론의 예측이었다.

‘자연 선택은 최적의 설계가 필요하지 않고, 경쟁자보다 약간 더 잘 작동하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단순한 이유로 통제받지 않는 진화는 혼란과 비효율을 예측한다. 신다윈주의에서는 우연한 돌연변이가 새로운 정보의 원천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연에는 최적이 아닌 투박한 설계가 가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비알렉이 그랬던 것처럼, 자연의 특정 측면을 수학적으로 조사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자연계는 매우 효율적이고, 잘 설계된

것으로 입증되어 엔지니어들은 종종 생물의 특징을 모방해 발명품을 개선해 왔다. 생체 모방이라는 분야는 공기역학, 재료, 정보 저장, 차량 흐름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자연의 접근 방식이 우리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낫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리브스가 지적했듯이 자연은 예지력이나 의도가 없으며 정보를 생산할 능력도 없기에 어떤 문제에 ‘접근’하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는다. 대신 <세포 속의 시그니처>의 저자 스티븐 마이어가 말했듯이, 우리의 일관되고 반복적인 경험에 따르면 예지력, 의도, 정보는 항상 물질적 과정이 아니라 정신적인 특징이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학적 최적화에 가까울 정도로 좋은 설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세상을 마주한 관찰자들은 형광 현미경이나 육안으로만 관찰할 때 어떤 이론의 예측이 우리의 관찰과 가장 잘 맞는지 질문해야 한다. 계속 잘못된 이론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학적인가?

/ 세인 모리스(콜슨 센터 선임작가)

원문: breakpoint(20241209)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

천국으로의 아름다운 환송!

하나님 사랑과 위로, 평안 선물하는 ‘서빙고 권사회’

온누리교회 올해 표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절박함의 표현이다. 이와 짝을 이루는 표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준비된 신부만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준비된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성품을 닮은 사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온누리신문>에서 바로 그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그 세 번째 주인공은 서빙고온누리교회 권사회(이하 서빙고 권사회)다. 서빙고 권사회가 아름다운 섬김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중에도 유족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평안을 선물하는 장례사역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서빙고 권사회가 천국환송예배에서 유가족을 위로하며 조가를 부르고 있다.

“천국 문에 들어서면 모든 사람 춤을 춘다네, 나는 지금 주와 춤을 춘다네, 나는 지금 주와 발을 맞추네♪”

이 찬양 가사처럼, 천국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곳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한 사람의 천국행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그래서 ‘장례사역’은 떠나는 사람을 눈물로만 보내는 사역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희망을 품고 감사와 찬양으로 보내는 천국으로의 아름다운 환송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지인들이 모여서 고인(故人)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고, 찬양과 말씀으로 서로에게 위로와 평안, 희망을 선물하는 아주 특별한 예배의 자리다. 사랑과 기쁨만 가득한 천국에서 열릴 무도회를 이 땅에서 잠시나마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이기도 하다.

함께 울고, 위로하며 천국 소망 노래하는 사람들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낸 이들의 슬픔은 기능조차 어렵다. 고인(故人)이 도착한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 한들, 아직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그 상실은, 그 이별은 큰 슬픔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위로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 아름다운 일을 온누리교회 권사회가 담당하고 있다. 권사회가 주도하는 장례사역의 역

할이 바로 그것이다.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권사의 역할은 ‘교역자를 도와 교우를 권면하고, 돌보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권사회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긴 성도들을 위로하는 장례사역을 최우선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특히 서빙고 권사회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모범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장례사역에 진심이다. 천국 가는 성도의 마지막 길을 배움하며, 유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는 사역에 발 벗고 나선다. 서빙고 권사회에서는 온누리교회가 주관하는 천국환송예배(별인)와 하관예배(화장장, 장지)를 섬긴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소속 공동체(가정사역, 강서, 강촌, 고양은평, 관악금천, 광명, 김포, 노원, 동대문중앙, 동작, 마포, 북누리, 성동광진, 성북, 신용산, 서대문, 서빙고, 양천, 여의도, 영등포구로, 용산, 이수, 이촌, 일산파주, 일본어, 찬양사역, 한강, OCC) 소속 권사들이 돌아가며 연 2회, 한 주씩 장례사역 섬긴다. 지난해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만 천국환송예배를 112번 드렸는데, 서빙고 권사회 소속 권사 1,829명이 참석했다. 유족들과 함께 울고, 그들을 위로하며 천국 소망을 노래하는 최일선에 서빙고 권사회가 있었다.

그들의 섬김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서빙고 권사회는 장례가 나면 깊은 밤이든, 새벽이든, 먼 거리든 상관없이 슬픔에 잠긴 유가족 곁으로 가장 먼저 달려간다.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들고 장례식장을 찾아간다. 그리고 유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 흘리며 안아준다. 그 품에서 느끼는 온기가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있다. 그만큼 서빙고 권사회의 헌신적인 섬김이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된다는 의미다. 유가족들이 “서빙고 권사회의 섬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선물 받는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박규리 권사(동대문중앙공동체)는 어머니를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깊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 어머니는 살아생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남동생이 전통적인 분향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몹시 무거웠는데 천국환송예배를 드리면서 응어리진 마음이 눈 녹듯 녹았다.

“그 많은 권사님이, 그것도 새벽 3시에 저희 어머니 천국환송예배에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한결에 달렸으셨습니다. 그 새벽,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신 권사님들은 하나님이 제게 보내신 천군 천사와 같았습니다. 권사님들이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섬김에 가족들이 크게 감동했습니다. 눈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찬송이 절로 나왔습니다.”

육진화 권사(이촌공동체)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소천 앞에서 깊은 두려움을 느꼈다. 먼 훗날 일이라 생각하며 ‘엄마 장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막연한 고민만 했었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니까 눈앞이 하얘졌다. 그때 서빙고 권사회가 큰 도움을 줬다.

“지나해 9월, 엄마가 천국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두려움과 격정에 사로잡혔었는데, 서빙고 권사회가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제가 슬픔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엄마의 천국환송예배는 마치 새집인 천국으로 이사 가서 여는 집들이 같았습니다. 서빙고 권사회와 공동체 식구들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서 ‘엄마가 이 땅에서보다 천국에서 더 행복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확신이 정말 큰 위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이현지 성도(한강공동체)는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큰 위로와 감동이 있었다. 남편이 외아들이기에 장례를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았다. 슬픔을 함께 나눌 형제가 없어서 홀로 감당해야 했고, 그 외중에 해결해야 하는 행정적인 일

들도 부담이 됐다. 정말 혼자된 것 같았던 그때, 서빙고 권사회와 공동체에서 찾아와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 줬다. 그때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이 있었는지 모른다.

“저는 온누리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입니다. 새가족 교육을 이제 세 번 받았을 뿐이라서 교회의 도움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님이 장례 소식을 듣고 한결에 달려오셔서 저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새벽부터 오셔서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서빙고 권사회 그리고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천국환송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천국으로 가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큰 위로였습니다.”

장례사역, 천국 가는 길 밝히는 등대

장례사역은 섬기는 사람이나 섬김을 받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 유가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섬기면서 누리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영 권사(성북공동체)는 장례사역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을 더 깊이 깨달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섬김은 젊은 여자 성도님의 천국환송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더니 초등학교와 중학생 남매가 유가족이었고, 친척 몇 분이 계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손을 꼭 잡아 주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친척들이 정말 고마워하시며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감사했습니다.”

조호영 목사(서빙고 권사회 담당)는 이 귀한 사역에 온누리교회 모든 권사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장례사역은 단순한 장례절차를 돕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천국 소망을 선포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눈물로 시작하지만, 찬양과 감사로 마무리되는 예배입니다. 때로 새벽길을 달려가고, 때로 먼 거리를 가더라도 마다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온누리교회 모든 권사님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 목사의 말처럼, 장례사역은 단순히 이 땅에서 마지막 작별을 돕는 일이 아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한다. 장례식장에서 흘린 눈물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고, 슬픔과 허망함 위에 천국 소망이 심겨질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위해 서빙고 권사회는 슬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선물하며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2025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어린양을 바라보라
Behold, the Lamb of God

그 청년들의 아름다운 헌신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홍보 웹페이지 제작한 ‘Lambup팀’

2025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이하 40일 새벽기도회)의 은혜와 감사 그리고 기쁨이 날로 커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도로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삶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고 있다”는 성도들의 간증이 줄을 잇고 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의 섬김이 만든 열매가 분명하다.

여기에도 40일 새벽기도회를 더 은혜롭고 풍성하게 만드는 헌신자들이 있다. 그 주인공은 SNS공동체 소속 청년들로 구성된 ‘Lambup(어린양+Wake Up)팀’이다. 그들이 40일 새벽기도회 홍보 웹페이지를 제작한 장본인들이다. 그들을 만나 40일 새벽기도회 홍보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들어봤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최근 40일 새벽기도회 홍보 웹페이지가 성도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그만큼 이목을 끌고, 40일 새벽기도회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40일 새벽기도회 홍보 웹페이지를 제작한 ‘Lambup팀’은 정말 급하게 만들어졌다. 40일 새벽기도회 시작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탄생했다. 팀원도 다섯 명(기획: 김대현, 개발: 홍승호, 배순호, 정주현, 디자인: 김진수)뿐이다.

40일 새벽기도회 홍보 프로젝트는 최성민 목사(대학청년부 본부장, SNS공동체)가 제안했다. SNS공동체에서 ‘I WILL테크팀’으로 활약하던 청년들과 새로 영입한 청년들이 모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청년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누구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Lambup팀에 참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민도 없이 바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시간, 단 일주일!
밤을 지새우는 수밖에...

문제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40일 새벽기도회 홍보 웹페이지 제작에 주어진 시간은 단 일주일이었다. 턱없이 부족한 시간 안에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 동안 Lambup팀원 모두가 밤을 지새웠다. 밤낮없이 헌신해서 ‘출석’, ‘말씀’, ‘묵상’ 기능이 제공되는 40일 새벽기도회 홍보 웹페이지를 완성했다.

사실 40일 새벽기도회 홍보 웹페이지 제작과정이 그리 쉽지 않았다.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 의도는 매우 단순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40일 새벽기도회에 더 많이, 더 유익하게 참여하도록 돕는 게 전부였다.

김대현 형제(기획 담당)는 40일 동안 이어지는 새벽기도회에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싶었다.

“40일 동안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는



홍보 웹페이지를 제작한 ‘Lambup’ 팀(왼쪽부터 김진수 자매, 홍승호, 정주현, 김대현, 배순호 형제).

“Lambup팀에 참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민도 없이 바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지를 가장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가 ‘출석 스탬프’ 기능으로 새벽기도회 참여를 독려하고, ‘말씀카드’를 공유하고 기록하는 등의 기능을 추가해서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받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수 자매(디자인 담당)는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다.

“모든 성도가 40일 새벽기도회 홍보 웹페이지에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시각적으로도 편안함을 제공하는 디자인을 하고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웹페이지 제작과정이 곧 예배

40일 새벽기도회 홍보 웹페이지를 제작하면서 Lambup팀원들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큰 은혜를 받았다.

홍승호 형제(개발 담당)는 어머니가 40일 새

벽기도회 홍보 웹페이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했다.

“제가 제작한 40일 새벽기도회 홍보 웹페이지를 어머니가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성도님들께도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 같아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정주현 형제(개발 담당)는 홍보 웹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40일 새벽기도회 참여 동기가 만들어졌음을 깨달았다.

“사실 제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40일 새벽기도회 홍보 웹페이지를 제작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집중하고 마음을 쏟아내며 40일 새벽기도회 홍보 웹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도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여해야겠다는 동기가 만들어졌습니다. 40일 새벽기도회 홍보 웹페이지를 개발했는데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거룩한

절’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Lambup팀원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40일 새벽기도회 홍보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 자체가 예배였다고 고백했다.

“팀원 모두가 일주일 동안 잠을 줄여가며 웹페이지 개발에 참여했는데 누구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40일 새벽기도회 홍보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모든 과정이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앙망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섬김이 보석보다 귀한 이유

Lambup팀에게 40일 새벽기도회 홍보 웹페이지 제작 프로젝트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각자의 달란트인 IT 기술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배순호 형제(개발 담당)가 오랫동안 소망했던 IT사역에 대한 소망과 포부를 밝혔다.

“IT 기술 분야가 사역과 선교에 더 많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과 비전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40일 새벽기도회 홍보 웹페이지를 제작하면서 그 소망과 비전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 일에 제가 쓰임 받고, 헌신하는 방법을 기도하며 구할 것입니다.”

김진수 자매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감사하며 헌신하겠다고 마음먹었다.

“Lambup팀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섬길 기회가 많다는 것을 알고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최성민 목사는 Lambup팀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면서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청년들이 비전을 품고, 섬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교회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비전과 섬김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청년들이 Lambup팀입니다. 이 청년들의 헌신과 섬김이 보석보다 귀한 이유입니다.”



〈홍보 웹페이지〉

맛있는 말씀 해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삼상 3:4)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질문 중 한 가지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다. 우리가 큐티와 말씀 묵상을 하는 것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함이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생겨나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된다.

〈사무엘상〉3장은 사사 시대 말기 극심한 타락으로 인해 여호와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가 배경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 시대를 사는 두 인물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한 명은 이스라엘 영적 타락의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구(舊)시대의 지도자 엘리이다. 다른 한 명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소년 사무엘이다.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한나의 서원대로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으로 바쳐졌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는 ‘아이’였다.

당시는 여호와와의 말씀과 이상이 매우 희귀한 시대였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98세로 나이가 많고, 몸이 뚱뚱했으며,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었던 사람으로 묘사된다. 이와 달리 아이 사무엘을 묘사할 때는 그가 하나님의 등불이 켜있는 ‘여호와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무엘이 성소나 지성소에 살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만약 사무엘이 성소에 살았다면 성막 주변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머물만한 숙소 기능을 하는 건물들이 들어섰을 것이다.

〈사무엘상〉의 저자는 왜 사무엘이 여호와와의 전에 누워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아이 사무엘의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영적인 위치를 강조하고 부각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등불이 켜있는 성전에 누워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처럼 빛나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사무엘상〉3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

면이 네 번이나 반복된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부르시는지라’의 동사의 원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라’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부르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말씀을 듣고, 그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을 세워서 함께 일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의 부름으로 착각하고 그에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한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이나 듣고도 계속 엘리의 부름으로 착각했다. 그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 개인적인 체험을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세 번이나 반복된 사건을 통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

보기를 원한다.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바쁘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간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가는 일이 더 어려워진 시대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순종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귄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더 가까이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과 장소, 환경을 채워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더욱 분명하게 인생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정상훈 목사
(인천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거룩한 헌신과 축복 기도

3월 24일~3월 30일
〈민수기〉 4:21~7:9



묵상포인트

1: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 것은 특권이다. 고핫, 게르손, 므라리 자손이 맡은 다양한 역할을 살펴보고, 하나님 일을 맡은 자의 마음에 대해 묵상하자.

▶레위인 가운데 30~50세

에 속한 남자는 회막에서 봉사해야 한다.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은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 아래 회막에서 일한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 휘장, 회막과 그 덮개, 뜰의 휘장 등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한다. 므라리 자손은 성막의 골조 부분인 널판과 띠와 말뚝과 줄 등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30~50세의 레위 자손을 계수하니 모두 8,580명이다.

묵상포인트 2: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의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부정한 사람,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성적인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조처와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자.

▶하나님이 머무시는 진영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 환자, 유출병 환자,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는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은 죄지는 사람이 돌이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다. 이웃에게 죄를 지어 손해를 입혔다면 회개하고 본래 값에 5분의 1을 더해 돌려줘야 한다. 배상받을 사람이나 친척조차 없다면 그 배상물은 하나님께로 돌려 제사장 뚝이 되게 한다. 아내의 간음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 죄를 기억나게 하는 ‘의심의 소제’를 드린다. 여인이 부정하지 않다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을 하지만, 부정하다면 해를 입고 저주를 당하게 된다.

묵상포인트 3: 나실인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스스로 특별한 서약을 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축복 기도문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자.

▶남자든 여자든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일정 기간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지켜야 한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를 자르지 말며, 시체를 가까이하지 않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서원 기간에 부정하게 되었다면 정결 의식을 이행해야 한다. 서

원 기간이 끝나면 정해진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 후에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도록 기도문을 주셨다(민 6:24~26). 모세는 장막 세우기를 마치고 그것에 기쁨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수레와 소를 봉헌하고, 모세는 그것들을 레위인에게 주어 회막 봉사에 사용하게 했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영적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결한 곳에 머물기를 기뻐하신다. 가정, 일터, 교회 등 내가 속한 공동체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해 늘 기도하며 힘쓰자.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일이 있다면 죄 고백에만 머물지 말고 정당한 배상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자. ▶가정은 성전과도 같다. 가정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부부간에 정직하고 진실하자.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 나실인이라 할 수 있다.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자. ▶〈민수기〉 6장 24~26절 암송하고, 그 기도문으로 나를 향해, 가족을 향해, 이웃을 향해 축복하자.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임송은 자매의 암 치유를 위해서

임송은 자매(성북공동체)의 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작년 말, 임송은 자매가 배가 아파서 여러 병원을 찾아가 원인을 찾던 중에 간암 말기와 신우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간부터 항암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3월 24일(월) 세 번째 항암치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송은 자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왔습니다. 재작년 몽골 아웃리치를 가면서 그곳의 아이들을 위한 물품을 가득 채운 자기 몸집보다 큰 노랑색 여행캐리어를 들고 오던 모습이 기억에 선합니다. 작년 러브스타나에서 고베개척과 신학교를 방문했는데,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에 가장 많이 눈물 흘리며 기도한 자매님입니다. 고통 중에도 씩씩하게 항암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투병 상황입니다. 항암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면역력이 올라오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치료 상황과 일정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대로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송은 자매의 가족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중보기도의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기를,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에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해주시요. 하나님의 기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루어져 임송은 자매의 완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익명의 성도

Q&A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최악’으로도 ‘최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을 보면서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지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는데,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최근 새롭게 개편해서 많은 인기를 누리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 ‘냉장고를 부탁해’다. 2014년 처음 시작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스타급 셰프들이 게스트들의 가정에 있는 냉장고의 식재료를 그대로 사용해서 15분 안에 요리를 만들어 경연한다. 짧은 시간 안에 거침없이 요리를 만들어 내는 셰프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경이롭다. 어떤 재료든 셰프의 손안에서 15분이면 완벽한 요리가 탄생한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안타깝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인간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 파괴되고, 깨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학창시절부터 시작된 사회의 경쟁은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그칠 줄 모른다. 온라인 매체에서는 익명이라는 방패에 숨어서 누군가를 너무 쉽게 비난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기도 하고, 인종과 종교, 국가와 이념 간 갈등과 반목(反目)이 사그라들 줄 모른다. 이 악한 세상의 모습을 볼 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

과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이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은 왜 악할까?”, “세상의 악이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왜 세상의 악에 대해 침묵하시는가?”

“우리는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만연할지라도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해야 한다.”

세상의 폭력과 악행은 비단 현대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인류의 첫 갈등과 살인은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아담과 하와와 자녀들 안에서 발생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던 구약 시대에도 우상숭배와 음행이 끊이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마저 사람들은 서로 반목하고, 비난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더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여전

히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악으로도 최고의 선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이라는 재료로도 가장 선한 요리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기 두 셰프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 셰프는 각 지역에서 나는 가장 좋은 특산품으로만 최고의 음식을 만들 수 있다. 또 다른 셰프는

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만일 하나님이 선과 악의 행동으로 사람을 판결한다면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악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죄 아래에 놓여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만연할지라도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해야 한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만드시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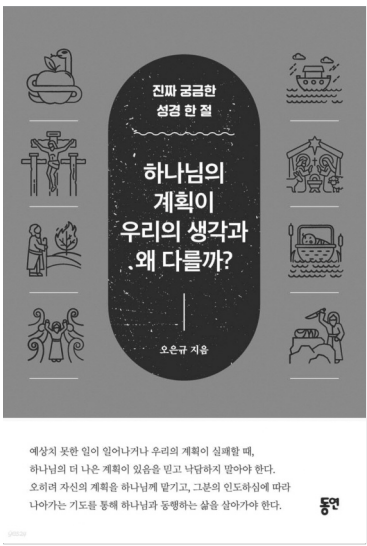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김한규 목사 (WEB 대학청년부)

신간

흥미롭고 맛있는 말씀 해설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왜 다를까?》
오은규 저 | 동연 | 15,000원

오은규 목사(성동광진공동체)가 책을 냈다. 온누리신문 <맛있는 말씀 해설> 코너에 기고한 글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왜 다를까?>라는 제목으로 엮었다. 이 책에서 오은규 목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나 내용이 익숙하지만, 실제 의미와 다르게 해석되는 말씀들을 선별해

서 쉽고 명쾌하게 풀어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논리와 경험을 초월하는 순간을 마주한다. 이 책에서는 바로 그 순간을 다뤘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궁금해하는 서른여섯 가지 질문을 다루면서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해석을 제시했다. 주로 이런 내용이다. ‘인간이 왜 신이라 불렸는지’, ‘왜 음란한 배우자를 맞이하라 하셨는지’,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왜 다른지’, ‘조상 탓인지? 내 탓인지?’, ‘

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특히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왜 다를까?>를 읽는 것만으로도 단순한 성경 해설을 넘어 독자 스스로 질문하고, 사유하도록 이끌어 준다. 명쾌하고 전문적인 성경 분석과 현대인들의 신앙적 현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독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더 넓어 시야로 바라보도록 안내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왜 다를까?>의 가장 큰 장점은 난해한 신학적 개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는 과정이 신앙 성장과 성숙, 깊이를 더해 줄 것이다.”

돈이 신앙에 주는 시험이 어떤 것인지’, ‘유혹과 시험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마음속 생각도 죄가 될 수 있는지’, ‘666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뱀과 독약이 과연 믿음의 시험인지’ 등의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한다.

이 책의 특별함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주제들을 깊이 탐구해서 쉽게 풀이해주는 데 있다. 성경에 나오는 어려운 본문들을 천천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과 이해가 충돌할 때 그리스

도를 쉽게 이해하면서 끊임없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종종 성경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개념들을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오은규 목사는 이점에 착안해 성도들이 성경을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도록 부드러운 문체와 알기 쉬운 예시, 헬러이 풀이 등을 활용했다. 책 내용 자체가 얼마나 친절하고 부드러운지 모른다. 저자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다.

또 다른 장점이 있다. 이 책은 성경에 대한 단순한 이론적 설명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

이다. 각 주제의 마지막 페이지마다 묵상과 기도제목을 제시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코너를 구성했다. 성경을 깊이 알고, 삶에 적용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유익도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왜 다를까?>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궁금증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새신자들에게도 좋은 안내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탐구에 그치는 게 아니다. 성경을 알고, 삶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는 과정 그 자체가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 그 깊이를 더해줄 것이다.

물론 이 책이 성도들의 모든 신앙적 질문에 완벽한 대답을 제공한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최대한 합리적이고, 신학적으로 잘 정돈된 알기 쉬운 답변이 제시된 것은 분명하다. 성경을 빠르게 이해하고,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더 많은 영혼 돌보는 공동체로!

온누리M미션·AIC 통합감사예배 드려

온누리M미션과 안디옥 인도네시아 선교회(Antioch Indonesian Community, AIC)가 하나 되어 더 많은 영혼을 돌보게 됐다. ‘온누리M미션·AIC 통합감사예배’를 지난 3월 16일(일) 오후 3시 온누리M센터 온누리홀(지하)에서 드렸다. 온누리교회 및 온누리M미션 리더십과 봉사자, 사역자, 안디옥 인도네시아 선교회 운영위원 및 사역자, 성도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온누리M미션·AIC 통합감사예배에서는 김태완 목사가 사회를 보고, 랜디빠당 목사가 통역했다. 수원안디옥찬양팀 찬양, 김영환 장로 대표기도, 안디옥 인도네시아 선교회 소개 영상 상영, 인천안디옥찬양팀 특순,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남경우 원장 축사, 김홍주 목사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못 본 체하지 마라’(신 22:1~4)를 주제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온누리교회는 이주민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주민의 상황을 못 본 체하지 않고 사역을 이



온누리M미션·AIC 통합감사예배에서 이재훈 위임목사가 설교하고 있다(통역: 랜디빠당 목사).

어 왔다”면서 “이제 온누리M미션과 안디옥 인도네시아 선교회가 하나 되어 더 많은 영혼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남경우 원장(한국선교훈련원)은 “온누리교회와 안디옥 인도네시아 선교회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만났고, 지금도 ‘선교’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이주민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바란다”고 축복했다.

안디옥 인도네시아 선교회(AIC)는 1995년 인도네시아 이주 근로자의 제자화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비전으로 품고 창립했다. 온누리교회와 인선회(온누리교회 인도네시아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회)의 후원으로 사역을 이어왔고, 올해부터 사역을 통합했다. 인도네시아 이주민을 대상으로 복음 전도, 제자훈련, 긍휼 사역, 선교사 훈련, 현지 교회 개척, 미전도 종족 선교 등을 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교회여, AI로 미래를 준비하라!’

2025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FMC25)

한국 교회와 목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2025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FMC25)’가 오는 5월 26일(월)과 27일(화) ‘교회여, AI로 미래를 준비하라!’를 주제로 막 오른다.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FMC25)에서는 AI와 기독 OTT ‘풍당’ 플랫폼을 활용한 미래 교회의 목회 전략을 모색한다. AI 기술 트렌드를 접목한 미디어 사역에 대한 알찬 강의와 세미나가 이어진다.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FMC25)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

들은 3월 24일(월)부터 기독 OTT ‘풍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5월 25일(일)까지 사전 신청하면 특별할인이 적용된다. 온누리교회 성도와 CGN 후원자는 참가비 50% 할인 혜택이 있다.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FMC25)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미디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2023년 ‘AI 시대, 교회의 미디어 솔루션’, 2024년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미디어 전략은?’을 주제로 진행됐다.

문의: 02-3275-9216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SPS)’ 개교 및 학생 모집

4월 2일부터 1차 원서접수, 5~8학년 대상

성경적 세계관으로 운영하는 국제 대안학교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이 오는 8월 개교한다. 온누리청소년센터 4층에 있는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은 5~8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학년별 20명 내외를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4월 2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 홈페이지(seoulprovidence.org)에서 하면 된다.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은 갈수록 커지는 세상 문화와 기독교 정신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그리스도 중심

의 기독교 교육과 우수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했다. 향후 미국 ACSI가 발급하는 3~4년 과정의 정식 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과정은 2026년 개설할 예정이다.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 오픈하우스가 4월 19일(토)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열린다. 오픈하우스 참가신청은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문의: admissions@seoulprovidence.org

69기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4월 11~13일 Acts29 비전빌리지

69기 내적치유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1일(금)부터 13일(일)까지 2박 3일 동안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60명을 모집한다. 회비는 15만 원.

내적치유학교에서는 ‘내적치유와 상처’, ‘역기능 가정의 치유’, ‘학대와 수치심의 치유’, ‘아버지 하나님

의 마음’,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 ‘기쁨의 회복’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 최용준 목사(양재 상담실 담당), 오원웅 목사(마음공감심리치료연구원 원장), 오은규 목사(내적치유학교 담당)가 강의한다.

문의: 010-6330-7634

CMN 미용스쿨 훈련생 모집

4월 1일부터 매주 화 오전 10시 양재 JDS홀

온누리교회 의료선교팀 CMN(Christian Medical Network)이 미용스쿨 훈련생을 모집한다.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양재온누리교회 JDS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

만 원(간식 포함, 재료비 별도).

CMN 미용스쿨에서는 티닝 가위 사용법, 바리깡 사용법, 신사머리 커트, 롱헤어 커트, 퍼머 등 다양한 미술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문의: 010-9034-5369

창조신앙스쿨 참가자 모집

3월 30일~4월 26일 매주 토 오후 7시 온라인

창조신앙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30일(일)부터 4월 26일(토)까지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4월 26일에는 원데이창조탐사를 한다. 참가신청은 4월 4일(금)까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탐사비 포함).

창조신앙스쿨은 창조과학방법론을 배우고, 성경과 과학을 전도 도구로 사용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2842-6781

계좌번호: 하나은행 573-910019-58205 (창조과학(세))

부부 큐티스쿨 참가자 모집

4월 5일~26일 매주 토

부부 큐티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빙고 신동아쇼핑센터 312호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3월 31일(월)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부부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강미향 목사의 현장강의, 부부 큐티 실습, 가정예배 시연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부부큐티스쿨은 개인의 말씀 묵상과 부부, 가족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가정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8147-3886

어린이·부모 하트스쿨 참가자 모집

4월 5일부터 매주 토 오후 2시

자녀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어린이·부모 하트스쿨’(이하 하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30분까지 양재온누리교회 JDS홀과 충성홀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어린이와 부모 1인당 5만 원이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이호찬 팀장(010-3710-9781)

아트비전 신임 작가 모집

회화, 조각, 공예, 디자인 등

온누리 아트비전에서 함께 사역할 신임 작가를 모집한다.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중에서 회화, 조각, 공예,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 분야 작가가 대상이다. 전문가와 비전공자(포트폴리오 검토)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온누리 아트비전에서 동역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전화(010-2321-6494)로 문의하면 된다.

온누리 아트비전은 사회선교본부 소속 예술문화사역팀이다. 예술 작품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누리 아트갤러리(온누리청소년센터 2층)에서 정기예배 및 모임을 한다.

문의: 010-2321-6494

사회선교스쿨베이직 참가자 모집

4월 8일~6월 24일 매주 화 8시 온라인

사회선교스쿨베이직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8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3월 31일(월)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사회선교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회비는 5천 원.

사회선교스쿨베이직 과정에서는

‘사회선교란 무엇인가?’, ‘사회선교의 성경적 이해’, ‘사회선교의 역사적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와 사역현장 방문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문의: 02-3215-3434, 3436

계좌번호: 하나은행 573-910012-69905 (온누리교회)

서빙고 열린새신자예배 스태프 모집

서빙고온누리교회 ‘열린새신자예배’를 섬길 스태프를 3월 30일(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안내, 웰컴, 미디어, 찬양, 무대 설치 등이다.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문의: 02-3215-3177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서빙고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



/ 최화섭 성도(홍콩온누리교회)

전도는 예수님의 선물!

나는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라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올해 홍콩온누리교회 목표가 ‘전도’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 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 일하는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전도 특강에 참석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전도학교팀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론보다 바로 실습하는 과정이었다. 1시간 만에 전도지 (최고의 행복)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음 날 바로 실습한다고 했다. 나는 전도지를 읽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딱 5명에게만 전도지를 읽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현장에 나갔다.

오전에 진행된 노숙자 사역에서 연세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기쁨기 때문”이라고 답하셨다.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이었다. 오후에는 노방전도에 참여했는데, 너무 떨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장로님이 먼저 인사하며 길을 열어주셨고, 덕분에 5명에게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읽어 줄 수 있었다. 사

람들이 싫어할 거라는 생각과 달리 내가 영어로 더듬더듬 이야기해도, 중국어를 못해도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전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너무 행복해서 배고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성적인 내가 평소보다 두 배나 걷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이야기했음에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가득했다. ‘왜 이렇게 행복할까?’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전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전도대상자에게 했던 이 말이 내게도 전해졌기 때문이다. 마치 예수님이 “화섭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펄펄 올랐다.

〈마태복음〉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함께하시겠다고 하셨다. 나는 이 말씀을 직접 체험한 증인이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예수님의 선물이다. 전도하는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양재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



/ 지인주 성도(양재 온누리전도학교)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은혜

청년 시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로 ‘하나님을 위해 청년의 때를 드려야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러 신앙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눈앞에 놓인 숙제만 처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예배드리고 나오면 다시 세상 문제로 버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생에게 양재 온누리전도학교를 소개받았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했다. 양재 온누리전도학교에서 들었던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한 설교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였다. 늘 복잡하고 걱정이 많았던 내 생각이 단순해졌다.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빠져 있었음을 깨달았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에 있어도 기쁨이 없고, 예수님과 첫사랑도 잊고 지냈다.

양재 온누리전도학교 훈련 중에 지하철역 앞에서 이단 종교에서 나온 젊은 여성 3~4명이 나를 따라오며 계속 말을 걸었다. 무시하며 갈 길을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가방에서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꺼냈다. “내가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테니 내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라고 말했다니, 내 이

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며 그 자리를 떠났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회개가 터져 나왔다. 그날 이후 양재 온누리전도학교 하반기 과정 간사로 섬기게 되었다.

하반기 과정이 끝날 즈음 평소 알고 지내던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개척한 경기도 오산 모그교회에서 온누리전도학교 강의를 열었다. 모그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고 간단하게 전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겨서 기쁘다”고 고백하셨다. 경기도 오산은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된 전도지 〈최고의 행복〉도 보여드렸다. 올해 상반기 온누리전도학교에 모그교회 성도들이 훈련생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나에게 일어난 많은 일의 시작은 단순한 순종이었다. 나는 그저 순정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고,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다른 지역 교회에까지 전하게 만드셨다. 지금도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 배하준 성도(부천온누리교회)

아내를 이해하고 돕는 남편

결혼 전부터 기회가 되면 ‘젊은부부학교’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 더욱 성숙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에 젊은부부학교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됐다. 서로 너무 다른 성향 탓에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다. 서로 원하는 표현법이 다르고, 성장 과정에서 겪은 저마다의 상처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젊은부부학교에 참여해서 남녀 간 차이를 알아보고, 진정한 의미의 결혼과 연합이 무엇인지를 새로 알게 되었다. 아내의 장점이 더 커지도록 응원하고, 약점은 내가 나서서 돕겠다는 다짐을 한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믿음의 선배, 가정의 선배인 다른 부부들이 겪는 저마다의 갈등과 진솔한 고민도 들을 수 있었다. 우리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양의 가정을 꾸려가야 할지 깊고 진지하게 고민했다.

우리 부부는 큰 갈등이나 문제는 없지만, 아직 자녀계획에 대해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 서로 원가정에서 겪은 상처와 앞으로 만들어 갈

경력에 대한 걱정이 큰 것 같다. 때로는 자녀 계획에 대한 고민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미성숙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너무 복잡하게 여기는 것 같아 자녀에 대해 고민하는 것 자체가 옳은 것인지 의문일 때도 있다.

이번 젊은부부학교에서 아내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고, 어떤 인생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기뻐다. 젊은부부학교 과정을 마치며 아내를 이해하고 돕는 남편이 될 것을 다짐한다.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을 꾸리는데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 기도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려고 한다. 결혼 이후 우리 부부가 함께 참여한 첫 교회 프로그램에서 그간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나는 내향적인 성격인데 매주 우리 부부를 맞이해 주신 조장님과 스태프분들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 젊은부부학교 모든 스태프께 감사하다.

평택와이미션 3기 수료 간증



/ 정쿨로이(평택온누리교회)

비로소 알게 된 ‘하나님의 기쁨’

오늘날 우리는 경계가 무의미해진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계는 넓어지고, 사람들은 다양해졌는데 내 경계만 고수하며 사는 게 불가능하다.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제 나만의 세계와 경계만을 고집하지 말고, 나 아닌 다른 삶을 살려고 할 때 새로운 역동성과 의미가 생긴다고 믿는다. 바로 이것이 문화와 상황의 경계를 넘는 ‘선교사들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오랜 세월 이민자이자 이방인, 소수자로 살았다. 그러면서 자의든 타의든 나와 비슷한 삶을 사는 이웃들을 알아보는 안목이 생겼다.

와이미션 과정에 참가하면서 ‘나’라는 경계선이 인종이나 문화보다 뛰어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교만해지거나 나를 낮게 여겨서 우울해질 수 있다. 하지만 나에 대해 덜 생각하면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내가 이웃들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다.

와이미션 과정에 참가하면서 많은 것을 깨

달았다. 예수님이 〈요한복음〉15장 11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하셨다. 따라서 우리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의 의지’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웃에게까지 흘러가야 하기 때문이다.

선교는 우리의 헌신으로 시작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같이 선교하자고 하시는 이유는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와이미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려서 반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오늘도, 내일도 삶과 세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선교사적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칼럼

세 가지 약속



김광동 장로
(NGO 더멋진세상 대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회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최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 교회와 국제개발 NGO들이 함께 이루어낸 성취이며,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라는 부르심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37년 동안 외교관으로 봉직하고, 2010년故 하용조 목사님의 비전으로 NGO 더멋진세상을 설립해 국제구호와 개발 사업에 매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받은 사랑을 돌려보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등지에서 마을을 입양하듯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식수 문제 해결, 보건 의료 지원, 교육 기회 확대, 소득 창출을 위한 경제적 자립 사업 등 종합적인 개발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이루시는 것을 수없이 목도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KCOC 회장직을 맡으며 몇 가지 사명과 비전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마음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개발 협력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제개발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뢰와 책임성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NGO들의 활동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 단체들이 탄탄한 기반을 다지도록 인큐베이팅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더욱 체계적인 방식을 도입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겠습니다.

둘째, 은퇴한 전문가들이 국제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그 길을 열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분들이 다시금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 나라 확장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도록 돕겠습니다.

특히 온누리교회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이 세계 곳곳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도록 연결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성도들이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기여하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한국 교회와 함께 국제개발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가장 소외된 이웃들에게 직접 손을 내미는 실천적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KCOC가 교회의 든든한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 선한 사역에 기도와 후원,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직접적인 참여로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길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걸어가고자 합니다. 많은 도전과 과제가 있겠지만,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에 성도님들이 함께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칼럼

오늘도 ‘그림행진’을 쓴다!



김준영 권사
(온누리 아트비전 팀장)

사도들이 써 내려간 <사도행전>처럼, 기독교 미술 작가들도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림행진’을 쓰고 있다.

온누리 아트비전은 2013년 이재훈 위임 목사님의 추천으로 KCAF(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에 참여하고, 사회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온누리교회 ‘미술인 선교공동체’다. 현재 안산M센터의 다문화가정 아동, 용산 발달장애인,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소망교도소, 맘앰맘스 미혼모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술힐링 수업’과 ‘미술치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온누리 아트비전의 회원들이 매주 혹은 매월 꾸준히 섬기며 사랑을 나누고 있다.

최근 교회의 관심과 배려로 온누리청소년센터 카페 옆에 온누리 아트 갤러리를 개관하며 ‘개관전 및 개관감사예배’를 드렸다. 새로 만들어진 갤러리에서는 아트비전 회원들의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외부 크리스천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할 예정이다.

기독교 작가들이 교회 안팎에서 단순한 작품 전시를 넘어 ‘그림행진’을 써가고 있다. 나 역시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현재 동안교회의 로열갤러리(약 330㎡) 큐레이터로 8년째 섬기고 있다. 동안교회 미술인선교회도 온누리 아트비전을 모델로 세워졌다. 매월 미술칼럼도 연재하고 있다. 나는 온누리 아트비전 팀장과 KCAF 운영위원장으로도 섬기고 있는데, 각 교회에 미술인선교회가 만들어지고 연합해서 기독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쓰임 받기를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다.

각 교회 미술인선교회 연합에서 지난해 열

린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기도와 후원 전시도 열었다. 내년 전시회에는 더욱 많은 교회의 미술인선교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인사동 전시장 세 곳에서 180여 명의 작가가 3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미술 특강도 하고 있다. ‘그림으로 보는 성경 속 식물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원더풀라이프 행사에서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성경 속 식물을 주제로 한 작품을 보여주면서 신앙적 의미를 전달했다. 싯답나무, 감람나무, 로렐나무, 종려나무, 에셀나무, 우슬초, 갈릴리바다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등의 의미를 설명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간증했다. 한 시간 동안 강의하고, 다음 한 시간은 실습으로 찬양하는 그림 그리기 등을 했다. 긴 시간 이어진 강의였는데 아트비전 작가들의 도움으로 참가자 모두 완성도 있는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선교사 자녀(MK), 시니어 아카데미, 소망교도소, 공동체 블레싱 등 여러 자리에서 특강을 하면서 그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강의 때마다 긴 시간인데도 집중해서 참여하는 참가자들을 보면 감사하다. 그림으로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온누리 아트비전처럼 더 많은 교회에 미술인선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더 많은 미술인선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작품 전시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기도한다. 더 많은 작가가 재능기부를 통해 더욱 아름다운 섬김을 실천하기를 소망한다. 그들의 섬김이 펼쳐지는 곳에서 미술로 위로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한다. 기독교 작가들의 전시와 섬김이 세상에 들어가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오늘도 많은 기독교 작가가 ‘그림행진’을 써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신앙에세이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



랜디빠당 목사
(온누리M미션 수원AIC사역담당)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에게 교회는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다. 가족과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 교회는 집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안디옥 인도네시아 선교회(Antioch International Community, AIC)도 이주민들에게 안식처이자 집이 되어주고자 시작됐다.

안디옥 인도네시아 선교회는 온누리교회 박관구 선교사가 1995년 설립한 인도네시아 이주민을 위한 교회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신앙을 나누고, 성장하는 1중요한 사역의 중심이 되어 왔다. 지난 30년 동안 안디옥 인도네시아 선교회는 예배와 제자 훈련,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이주민

들의 영적, 정서적, 실질적 필요를 채워왔다.

안디옥 인도네시아 선교회가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온누리M미션과 ‘통합’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6일(일) 두 기관 통합 예배를 드렸다. 두 기관이 공식적으로 통합하면서 이주민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사역을 펼칠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다.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적인 변화가 아니다. 앞으로 사역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사역 모델을 제시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안디옥 인도네시아 선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교회로 알려져 왔다. 온누리M미션은 넓은 자원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서 글로벌 선교에 강점이 있다. 이번 통합으로 두 기관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사역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통합이 안디옥 인도네시아 선교회의 정체성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온누리M미션의 지원을 통해 더욱 확대된 사역을 펼칠 기회가 될 것이다.

이 협력 모델은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주민 사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15년 전 온누리교회 외국인근로자사역팀과 여호수아청년부가 매주 토요일 컴퓨터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며 이주민들을 섬겼던 것처럼, 앞으로도 협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 사역도 더 많은 이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발전하고 있다. 많은 의료진이 무료 건강 검진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법률 지원과 상담 프로그램, 이주민과 그 가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신앙적 돌봄을 넘어서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다.

안디옥 인도네시아 선교회와 온누리M미션

의 통합을 통해서 더욱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사역 모델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주민 공동체를 돕는 일은 단순히 예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 단순히 이주민 사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이주민 공동체를 위한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번 통합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더 크고 강한 사역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안디옥 인도네시아 선교회가 그동안 쌓아온 독립성과 선교적 정신을 유지하면서, 온누리M미션의 더 넓은 지원과 협력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할 것이다.

안디옥 인도네시아 선교회와 온누리M미션의 통합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전도와 제자 훈련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그들 모두가 인도네시아와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제1533호 | 2025년 3월 23일(일)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강제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산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용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안구 양지면 추계로62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제주 노규석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AMA 형제교회 •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 AMA 협력교회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7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열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60 Mim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P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3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를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6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sabas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히카미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 -CI NAKA - 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김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iew C, Phu My Hung Q7,HCMC, Vietnam
--	--	---	--	---	--	--	--	--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 국내 온누리교회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용 도육환 노규석

■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래우
김미정 김상규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윤식
김은혜 김재석 김정호 김창희
김종민 김종아 김충호 김창호
김태광 김태웅 김태완 김한국
김현식 김홍주 노지형 노희배
류보홍 문영재 박근배 박성우
박성원 박성진 박정준 박태영
박형준 배순양 배해삼 백성우
변대현 서수민 송영진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승호 오은규
신현민 스티브 송동주 송재호
안사뮈엘 양성민 양진보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오현교
유진아 유현복 윤미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상욱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진기 이찬우
이호준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선범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영윤 정상훈
정진희 정재철 정영산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국 조병홍
조바울 조은광 조현수 진삼미
최대홍 최영미 이형준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혁준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카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충희 하원희 황신연

■ 전도사(전임)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대중
신주용 송예찬 안대진 유성하
유현우 이승호 이형목 임동현
장지훈 주하늘 최창호 홍근영
황유일

■ 부목사(준전임)

권오환 구재민 조영호 황종연
■ 교향악단악 목회자
하세태반
■ 국내파견 목사
고범석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성기 안한국
이기복 한정국
■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진숙 김병철
김종균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김지윤 백승현 박지파
서영철 강예남 양현주 윌헬메

에릭 마이클 스티븐스 이강혁 이만영
이상은 이승현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진숙 임혜선
정요한 제인랑 존페터 최정현
최요경 황연신

■ 전도사(파트)

강명주 강하람 강현구 고우리
김동우 김진미 김진숙 김평화
김한솔 김기희 김경환 김기태
김동우 김명초 김미리 김승희
김민수 김민희 김빛나 김승희
김소광 김예담 김예찬 김유미
김지석 김지선 김태현 김하목
김하은 김현주 김홍미 김우진
나기노 마사토 남 혜 문수진
미즈베를 박 권 박미애 박 성
박성훈 박오환 박용민 박유진
박지현 박종일 박진미 방예린
방진아 배유진 서아연 서은규
서혜진 손유정 송영호 신호철
심은섭 안류택 염영덕 오성광
오성민 오예원 오진우 오혜광
유수진 유 찬 유석현 유요한
윤준연 윤준호 이미진 이미진
이만규 이반석 이선혜 이선혜
이승은 이승희 이시하라 이은찬
이소라 이예찬 이은미 이준영
이재용 이진수 이주영 임노완
이지영 이형준 임규민 전미원
장건우 장성열 장영주 장성원
전준호 정영일 정은영 정은영
정찬영 제영민 정은영 조민희
정찬중 제영민 정은영 조민희
조슬기 조우현 조운식 조준기
지수정 지승환 차선익 최규종
최민정 최 은 최은영 최혜정
하예림 한용태 하영은 홍세나
홍솔기 황세라

■ 사역장로

강영국 강기석 강신익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용성
권용한 권철중 권경선 권광동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병중 김석인 김성택
김남식 김병철 김석인 김성택
김남식 김병철 김석인 김성택

김남열 김병욱 김성택 김승광
김두진 김병욱 김성택 김승광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최창규 최창수 최창길 최창희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는 그 날까지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2

성경 바람잡이가 돌아왔다!

매주 특급 게스트와 함께
요한계시록까지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CGN 유튜브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CGN TV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50분

고정 게스트
최복순 반장



성경 바람잡이
조혜련 집사



오십쇼2
바로보기



CGN 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